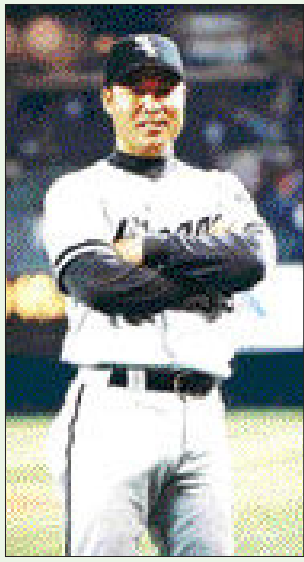


이만수, 프로야구 올드스타전 불참

“선동열과 배터리 호흡 못맞춰 이쉽다”



왕년의 홈런왕 이만수(48) 시카고 화이트삭스 불펜 보 조코치가 '국보급 투수' 명성을 얻은 선동열(43) 삼성 감독과 사상 첫 배터리 호흡을 맞출 기회를 놓친 것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만수 코치는 10일(한국 시간) "한국프로야구 올드스타전에 올드 스타로 참가해 연예인 팀과 경기할 수 있었는데 불참하게 됐다. 특히 후배인 선동열 감독과 처음 투수-포수 배터리 호흡을 맞출 기회를 놓쳐 아쉽다"고 말했다.

‘농구황제’ 조던, 송사 휘말린 까닭은?



“조던과 너무 닮아 피해 막심” 헤카드씨, 8억3천만달러 소송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여겨주지 않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미국 스포츠전문 채널 ‘폭스 스포츠’는 10일(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포틀랜드에 사는 한 남자가 ‘조던과 너무 닮아 오해를 받는데 지쳤다’며 8억3천200만 달러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앨런 헤카드라는 이 남자는 지난 6월말 ‘지난 15년간 매일같이 조던과 닮았다’는 오해를 받아 심신이 지쳤다며 조던과 스포츠용품업체 나이기 설립자 필 나이트를 상대로 각각 4억1천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소송을 냈다.

키가 약 182cm 정도인 헤카드는 “사람들은 내가 조던보다 거의 15cm나 작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불평을 터뜨리며 “심지어 체육관에 가더라도 하면 사람들은 내가 조던처럼 농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비난하기까지 한다”고 하소연했다.

‘트윈픽스’ 린치 감독, 베니스영화제 공로상



‘멀홀랜드 드라이브’ ‘트윈픽스’의 데이비드 린치(60) 감독이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공로상을 수상한다고 UPI통신이 9일 전했다.

이면서도 독특한 세계관을 과시해온 린치는 ‘광란의 사람’으로 1990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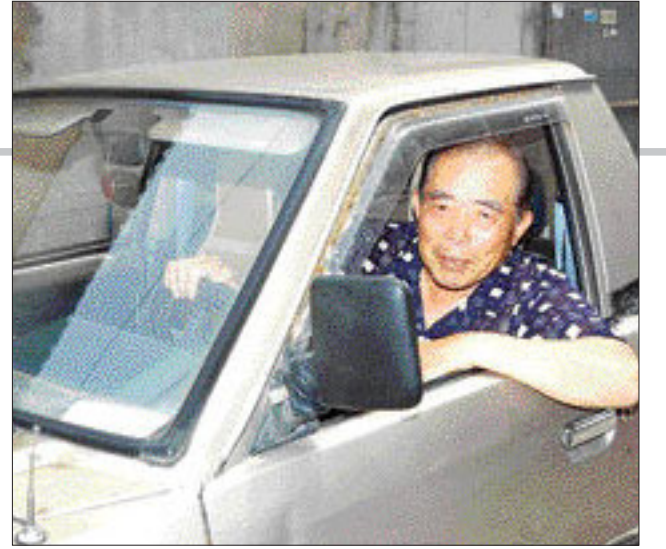
한편 8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열리는 제63회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린치의 신작인 제레미 아이언스와 로라 던 주연의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를 상영한다.

20년째 ‘포니’ 타는 손병준씨 차사랑

“나에겐 명품, 죽을때까지 탈겁니다”

“처음 15년간은 이슬도 안 맞았어요. 죽을 때까지 타렵니다” 이발사 손병준(72·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는 20년 된 국산 자동차 ‘포니2 픽업’을 유난히 아낀다. 보배나 다름없다.

고 있는 손씨가 쌓이나 발품을 나르려면 포니는 없애선 안 될 존재다. 손씨는 “포니를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쳐다보기도 한다”면서도 “작년에는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찾아와 500만원에 팔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은근히 자랑했다.



20년 된 자동차 포니를 몰고 아직도 도심을 누비는 손병준씨.

이 때문에 손씨 이웃들도 “진짜 오래 타네, 나중에는 명품 되겠네”하며 부러워한다. 손씨는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운전은 못 할 때, 죽을 때까지 포니를 타고 싶다”며 “좋은 것 갖고 싶은 마음은 다 같지만 형편에 맞춰 가면서 사는 것도 괜찮다”며 활짝 웃었다.

美 패션계 신인들풍 재미교포 디자이너 두리 정

패션 어워드 수상...전세계 매장 거느려



재미교포 디자이너 두리 정(33)이 뉴욕 패션계에서 무서운 신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말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06년 패션부문 유망주’로 소개됐던 그녀는 지난달 ‘CFDA(미국패션협회) 패션 어워드’ 시상식에서 신인 여성복 디자이너 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다.

미국패션협회가 수여하는 CFDA 패션 어워드는 패션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권위 있는 상이다. 정씨는 요즘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라는 소리를 듣지 않느냐”는 질문에 “너무 과한 칭찬”이라면서 “알에 몰두하는데 힘들어지기 때문에 세간의 조명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자녀 제프리 빈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미국 패션계 거물인 제프리 빈은 제가 독립할 때에도 가장 큰 후원자였다”고 말했다. 2003년 처음 뉴욕 컬렉션에 참가했던 정씨는 당시 보그 등 유명잡지에 소개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줄곧 뉴욕 컬렉션 무대에 올랐다.

독일서 ‘대~한민국’ 콘서트 연 페터 윈들러씨

자칭 애한파...“무작정 한국이 좋아요”



2006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스위스 전 경기가 있었던 지난달 24일 독일 하노버 월드컵경기장 인근 베토벤홀에서는 독일의 5인조 재즈 앙상블 살타첼로(Salta Cello)의 이색적 콘서트가 펼쳐졌다. 관객 가운데 3분의 2는 붉은 티를 입은 한국인이었고 무대에서는 한국팀 응원가가 연주됐다.

소리가 콘서트를 울렸다”면서 “마치 하노버 월드컵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다”고 흥분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횃수 세는 것을 포기했을 만큼 한국을 자주 방문해온 그는 독일인으로서 독일 현지에서 한국팀을 응원하는 콘서트를 연 이유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답했다.

친한파를 넘어 ‘애한파’로 통하는 독일의 5인조 재즈 앙상블 살타첼로(Salta Cello)의 리더 페터 윈들러(46·피아노)가 최근 내한, 독일에서 열렸던 한국팀 응원 콘서트 광경을 전했다. 그는 “한국팀의 스위스 전 경기가 있기 바로 전이었는데, 객석은 붉은 물결로 술렁였고 공연 내내 ‘대~한민국’

한국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 그는 “결혼한 남자가 늘 곁에 있다면 한국과 함께 한다”면서 “왜 다른 나라는 좋아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지만 왜 변신해야 하느냐, 나는 한국이 좋는데...” 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유학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인재들을 ‘잃어버린 세

대(Lost Generation)’로 표현하며 한국의 자부심 부재를 지적했다. 더 윈들러의 이번 내한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공개한 새 앨범 ‘아시아 하바네라’ 홍보를 위해서다. 애한파답게 ‘소주 파티’ ‘애국가’ ‘코리아, 고 파이팅’ ‘대자부 위드 점프’ 등 한국과 관련된 3곡을 실었다.

‘나홀로 공부’한 민사고 배환군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 영예 1위

“주로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세계 68개국 254명의 과학영재들이 두뇌경쟁을 벌였던 제3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개인 종합성적 1위를 차지한 민족사관고 3학년 배환(18) 군은 예상외로 ‘나홀로 공부’로 영예의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고 자신을 소개한 배환군은 2003년 중학교때 서울에서 열린 전국과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탄 것을 계기로 화학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외보다는 혼자서 공부하다 어려운 점은 친구들과 함께 토론했다고 자신의 학습방법을 공개했다. 그는 향후 진로와 관련, “과학분야 특히 화학이나 생물과학을 전공하고 싶다”면서 “유학도 준비중이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환군은 “사전에 예비문제를 통해 실험을 반복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고 시험전달 예상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좋은 성적을 냈다”고 소개했다.

송원여중 ‘청소년 합창콩쿨’ 대상

동정 박종민 랜드피아 회장



광주 송원여중 합창단(지휘 박미정 교사)이 지난 8일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열린 ‘제2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쿨’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금호로타리 클럽 회장 취임



박종민(주)랜드피아 회장은 최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호로타리 클럽 회장에 취임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임한규씨 장남 종찬(나주보건소 공중보건)군 김기원(전 남광건설 전무)씨 장녀 주미양=15일(토)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틀기과정목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화.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화는 월·금 오전 10시~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외)

동창·동문회

▲재광 전주 영생고 총동문회(회장 배기영) 모임=11일(화) 오후 7시 장어한마리.371-9230 ▲복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12일(수) 오후 7시 나주공당. 652-7788 ▲재광 무안복중 19회 동창회(회장 김영갑) 월례회=14일(금) 오후 7시30분 살맛나는 세상. 682-8592 ▲광상 32회(일지모) 동창회=14일(금) 오후 8시 아가미 참치회집. 011-9609-0055

▲광주 효동 32회 정기 단합대회=16일(일) 화순군 청평면 유원지. 오전 9시 모교 운동장 집결.

모집

▲화회장식국비교육생 모집=만 40세이상. 매월 11만원 수당 지급. 문의(재)연세직업전문학교 264-4300,4305 ▲광주 남구시니어클럽 시험감독관 모집=교직·공무원으로 퇴직한 60세 이상으로 모집 인원은 30명. 062-351-5070, 654-6080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전맹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과정·뇌병변 특화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자 수 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 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

중진회

▲영광김씨 재광중진회(회장 김시규) 월례회=13일(목) 오후 7시 백운산회관. 019-9773-7128

향우회

▲재광 해남군 산이면 향우회 임 상건례 및 이사회=12일(수) 오후 7시 상록회관 4층 연회장. 361-3555

=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홍패션·커피·퀵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야동미술·포크아트·가족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화대 사거리

지하철 상촌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은동본부 회원 모집=동일 쌀 보내기와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512-5788, 262-1542 ▲담양장애인방랑사회(회장 서원호) 봉사회원 모집=중증장애자에게 인계 봉사할 차량·후원·말벗 봉사회원 각 50명씩, 문의 (061)381-8909, 011-9600-8909, 011-9600-8102 ▲Philo통기타 동호회=40세 이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자도 가능 019-660-3388 ▲푸른학당=오전반(검정고시반·초등과정), 오후반(초등반·기초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대 맞은편 2층 529-1188

부음 ▲최순임씨 별세 김경섭·건축·미애·정숙·은지·은례씨 모친상 박수남·정영문·손상배씨 모친상=발인 11일(화)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경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남길모 특별분양 11월 (062) 521-1100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신동 안보회관(구 호진) 대표: (062) 515-4488